통도사불교대학, 역대 최다 인원 입학

대학 · 대학원 포함 1127명…등록 첫날부터 장사진

팬데믹 후 매년 1000여 명
불교대학 입학해 불교입문
홍보·맞춤형 전략 성공요인
편의시설·셔틀버스 지원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불교대학은 3월 9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2024학년도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통도사불교대학 입학생이 역대 최다 인원인 1127명을 기록했다. 전국의 불교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수로 포교의 새 방향과 희망을 제시했다.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3월 9일 설법전에서 '2024학년도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청우 스님, 교무국장 보원 스님, 재무국장 도영 스님, 사회국장 현범 스님 등 국장스님들과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스님이 참석해 입학을 축하했다.

통도사불교대학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매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해 불교대학의 포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입학한 1127명은 통도사불교대학 역대 최다 인원이다. 통도사불교대학 및 대학원은 입학식 기준 1학년 336명, 2학년 252명, 불교대학원 539명 총 1127명이 등록했다. 등록 첫날에는 새벽 5시부터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을 보여줬으며, 첫날부터 450여 명이 등록해 인기를 실감케 했다. 또 개설한 모든 강좌는 100명 선착순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도 못한 채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 같은 통도사불교대학의 성공 요인은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는 점이다. 부산·경남에 있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홍보 및 광고, SNS 홍보를 유지하면서도 올해는 내부 홍보에 주력했다. 통도사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에 집중한 것. 단순히 전각을 둘러보는 것 외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좌를 안내하는 포스터와 전단지를 곳곳에 배치했다.

강좌를 폭 넓게 마련한 것도 유의미했다.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탱화 및 불교 회화를 익히는 강의를 기획했으며, 불교입문부터 부처님의 생애, 중관사상 등 난이도 또한 다양하게 배열했다. 특히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종단 소의경전인 〈금강경〉 강좌도 준비했다. 이뿐 아니라 원활한 강의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과 셔틀버스 운행 등 다양한 노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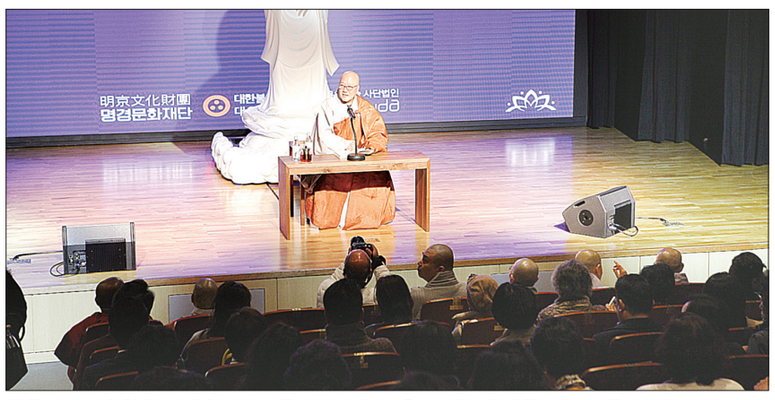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실천이 불교 공부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현덕 스님은 "진리를 향한 굶주림이 안내자가 되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안내했다"며 "봄의 매화도 숱한 인고의 세월이 조건이 되고 시절 인연으로 꽃을 피우듯이 순수한 여러분들의 발심이 불교로 이끈 씨앗이 되고 결실의 꽃을 피우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지금 전국의 불교대학은 불교 입문의 주요 관문으로 자리했다. 아울러 불교대학 졸업 이후에도 신행 생활을 위한 안내로 꾸준한 성장을 제시하는 중요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포교국장 신경 스님은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신행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행단체를 안내하고 경남포교사단과 연계해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현재 강좌가 13개인데 앞으로 불교공부를 깊이 하고자 하는 분들의 요구에 발맞춰 심화반을 개설해 지속적인 공부를 이어가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강의 기부'로 선근 쌓는 계기를

쿠무다, 대중 강의 기부 기획
수불 스님 〈육조단경〉 강해와
황경환 · 김형석 등 명사 강연도



쿠무다가 기획한 명사 초청법회 · 특별강연에서 〈육조단경〉 강해를 하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불교문화포교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가 새로운 기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불교 최상 선근의 회향으로 불리는 법공양이다. 이를 위해 쿠무다는 매달 명사 초청법회 및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쿠무다는 대중 강의 기부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며 3월 11일 명상문화센터 지하 1층에서 '참 나를 찾아서 – 육조단경(六祖壇經)'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초청법사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으로, 입재법회 이후 1년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강해할 예정이다.

이날 수불 스님은 혜능 대사가 〈금강경〉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오조 홍인 대사를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며 "깨달음의 경지와 안목은 혜안(慧眼)으로도 부족하다"며 "육조 혜능 대사의 경지는 법안(法眼)이 열린 경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처님의 안목이었다. 법안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선의 세계를 안내한 경전으로 공부의 선근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라는 말처럼 백천만겁이 지나도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이 정법이다. 이렇게 귀한 법을 위해 소중한 인연으로 오늘 모였다"며 "그동안 쿠무다에서는 콘서트를 통해 관객에게는 좋은 문화를, 예술인들에게는 공연할 무대를 선사하며 그 수익금으로 심장병 어린이에게 수술비를 선물했다. 올해는 더 나아가 좋은 강연을 대중에게 기부하자는 취지로 새롭게 기획했다. 불법과 좋은 강의를 듣고 진리에 흠뻑 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무다는 1년간 수불 스님의 〈육조단경〉 강해를 진행하고 아울러 매월 명사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4월에는 황경환 (사)21세기불교포럼 이사장, 5월에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륵대범종, 천태조사 희원 담아"

부산 광명사, 3월 29일 미륵대범종각 낙성법회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 스님)가 오는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미륵대범종각 낙성과 타종법회'를 봉행한다.

광명사 미륵대범종은 성종사 원광식 주철장(국가중요무형문화재 112호)이 주조했으며 3700관으로 중량 14톤, 높이 3.2m, 직경 1.9m 규모다. 광명사는 "음향분석결과 범종의 1차 기본주파수는 86Hz, 2차 주파수는 193Hz로, 신라 에밀레종의 64Hz, 168Hz보다 높다"며 "맥놀이 주기 역시 20초간 4.5초로 뚜렷하게 나타나 국내 범종 역사상 가장 깊고 풍부한 울림을 가진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미륵대범종각 낙성 및 타종법회는 천태종 종정예하 도용 대종사를 증명대법주로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원로대덕스님 및 내빈 등 사부대중이 동참할 예정이다.

광명사는 "미륵대범종은 천태조사의 미륵정토왕생에 대한 희원을 담았다"며 "종신 표면에는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는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미륵불을 동남서북으로 모셔 부처님 정법의 영속(永續)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파라미타, 인성프로그램 운영 계획

3월 13일 정기총회서 결의



사단법인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3월 13일 부산 더파티 시청점 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 총회에는 총재 정오 스님, 사무총장 도림 스님을 비롯해 백명숙 협회장, 김석조 전 협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부산파라미타는 올해 사업목표를 조직 확대로 결의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템플스테이와 붓다볼 등 불교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총재 정오 스님은 "앞으로 펼쳐질 성과를 기대한다.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자리를 잘 닦아 보람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사무국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 솔선수범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몽골 수교 34주년 기념 영화제

한나래문화재단 '제1회 몽골영화제'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스님)은 3월 8일 영화의전당에서 '제1회 몽골영화제 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영화제는 한국과 몽골 수교 3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한나래문화재단과 영화의전당, 주몽골 부산영사관, 몽골국립영상위원회(MNFC)가 주최했다. 영화제는 '그 여인(The Woman)'을 시작으로 10일까지 몽골 영화 가운데 국제영화제 수상작 4편을 상영했다.

이사장 심산 스님은 개막식에서 "97년부터 이어온 몽골과의 교류가 발전해 최근에는 2010년부터 '도전 골든벨'을 실시해 몽골 학생들과의 교류로 확장됐다"며 "영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오늘을 계기로 몽골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 가구·병풍 30% 할인
※ 제품 소진시 까지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등 설치 할 인 — 설치 스카이 3월 30일까지 할인 /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3월 말까지 행사 중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 —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84,000원
입춘대길 수제 인쇄부적 할인 — 수제부적 50장 20,000원 / 국산 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 돈타래 40개 75,000원 /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 돈타래 40개 75,000원 / 원백 20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65,000원
5일초 24개 70,000원
3일초 40개 70,000원
1일초 90개 80,000원
15일초 12개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50,000원
15일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